

교회소식 및 광고

1. 8.1-9.15까지 40일 특별 새벽기도와 비전집회를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2. 한글학교가 시작되었으니 주위 자녀들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3. 10월25일 예배 후에 Green lake로 단풍놀이를 갑니다. 다 참석 바랍니다.
4. 성경통독(42주)에 한 분도 빠짐없이 모든 교우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5. 중보기도: 송희복 집사님 뇌수술 하시고 정상적인 회복을 위해 기도 바랍니다. 천춘미 집사님 수술과 온전한 치료 위해 기도바랍니다.
6. 환영: 김은영(267-356-1362) 차주희(215-738-0023) 아카디아학생

** 성가대/한글학교 문의--반주자: 박해경(240)641-3509 **

** 교회학교 문의--교육 담당 전도사: 이창연(240)271-5815 **

향기로운 예물

지난 주일 헌금 봉헌 (\$1,024.00)

십 일 조: 김광일 천춘미, 심선섭, 이창연 박해경, 조민연 우영자,
조병우 조은미,

감사헌금: 김광일 천춘미(회복 도우심), 이창연 박해경, 조민연
우영자, 조병기, 조병우 조은미

주일헌금: 강나희, 김은영 고향숙, 박병기, 손정옥 박순주, 심선섭,
이관호, 조병우 조은미, 조병기, 차주희, 무 명.

선교헌금: 김광일 천춘미.

이번 주 기도제목

1.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서.
2. 2세들을 위한 영어예배, 한글학교가 은혜 중에 잘 진행되도록.
3. 성령 강림 절기에 성령 충만함 받아 증인의 사명 잘 감당하도록.
4. 천춘미 집사, 송혜숙 권사, 송희복 집사님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5. 새롭게 시작하는 한글학교와 은혜로운 한 해의 결산을 위해서.

제7권 42호 | 2015년 10월 18일

영혼구원

제자양육

사랑의 섬김

담임목사 조병우

Rev. Dr. Byung Woo Cho

☎ 518-598-6380

byung4815@yahoo.co.kr

주일 낮예배	오전 11:00
어린이 예배	오전 11:15
새벽 기도회	오전 6:00 (화-토)
수요 예배	저녁 8:00

필라등대교회
Lighthouse KUMC of Philadelphia

137 N Easton Rd. Glenside, PA 19038

www.lighthousekumc.org

☎ 215-690-4919

주일 낮 예배

- 오전 11:00 인도: 조병우 목사
- 경배와 찬양 Opening Hymn 다 같 이
- 합심기도 Prayer 다 같 이
- 대표기도 Congregational Prayer 이창연 전도사
- 송 영 Spiritual Song 다 같 이
- 환영과 소식 Parish Concern 조병우 목사
- 찬 양 Anthem 성 가 대
- ♣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히브리서 11장 4~10절 다 같 이
- 설 교 Sermon 위대한 믿음을 본 받으라 조병우 목사
- 폐회찬송 Closing Hymn 397장. 믿음이 이기네 다 같 이
- ♣ 헌금봉헌 Offering 찬송가, 348장 (4절) 다 같 이
- ♣ 봉헌기도 및 축도 Offering Prayer & Benediction 조병우 목사
- ♣ 표에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 ♪ 즐겁게 식사하시면서 친교를 나누세요 ♪


수요 예배

수요 저녁 8:00

새벽기도회

새벽기도 6:00 (월-토)

이번주 섬김이

	낮기도	식사기도	친교담당	안내위원
이번주	이창연 전도사	김광일 권사	사랑속	조민연 송정예
다음주	송정례 권사	유금자 권사	말씀속	

《진실보다 아름다운 거짓》

가난하지만 행복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서로에게 무엇 하나 줄 수 없었지만 그들에게는 넘쳐흐르는 사랑이 있었지요. 어느 날 그런 그들에게 불행의 그림자가 덮쳐 오고야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알 수 없는 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게 되었지요. 그렇게 누워있는 아내를 바라만 볼 수밖에 없는 남편은 자신이 너무나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여러 날을 골똘히 생각하던 남편은 마침내 어려운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사랑하는 아내를 속이기로 한 것입니다. 남편은 이웃에게 인삼 한 뿌리를 구해 그것을 산삼이라고 꿈을 꾸어 산삼을 구했다고 아내에게 건네주었지요.

남편은 말없이 잔뿌리까지 꼭꼭 다 먹는 아내를 보고 자신의 거짓말까지도 철석같이 믿어주는 아내가 너무나 고마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인삼을 먹은 아내의 병세는 놀랍게도 금세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남편은 기쁘기도 하였지만 한편으론 아내를 속였다는 죄책감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내의 건강이 회복된 어느 날 남편은 아내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미소를 띄우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인삼도 산삼도 먹지 않았어요. 당신의 사랑만 먹었을 뿐이에요’ 세상에는 진실보다 아름다운 거짓이 있습니다.

거짓도 진실로 받아들이는 사랑이 있습니다.

높이 있는 사람보다 깊이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보다 배려하는 사람, 말 잘하는 사람보다 잘 들어주는 사람. 부유한 사람보다 풍성한 사람, 성격이 보이는 사람보다 인격이 보이는 사람, 엄격한 사람보다 너그러운 사람이 좋습니다.

비교하지 않고 아름답고 좋은 것만 바라보며 주위도 돌아보는 넉넉한 여유 속에 모든 일들이 형통으로 담겨지는, 기쁨과 감사와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한 주간되시기를 기도합니다.